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9호 [루계 제25502호] 주체105(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12월 23일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가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우리 당을 백배천배로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만리주로를 활짝 열수 있는 근본담보이라고 하시면서 당대회이후 전당적인 첫 대회로 소집한 이번 대회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리시였다.

또한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당중앙과 발걸음을 같이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기본전투진지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초급당위원장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동북아시아의 현정세를 비롯한 제반 국제정치정세와 남조선정세를 통보하시고 오늘의 국제정세상황은 조선로동당이 택한 병진사상과 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확하였는가를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지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이 유엔《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단독제재》까지 떠벌이며 발악하고있는것은 우리의 승리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고 하시면서 올해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적인 당대회를 통하여 웅대한 앞날을 설계하고 그 관철을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총동원전을 과감히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새로운 만리마의 새시대를 탄생시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200일전투기간에 공업과 농업, 과수, 수산부문에서 례년에 없는 생산성과가 이룩되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 1단계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려명거리건설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국방과학부문에서 우리 식 최첨단전략무기개발에서 성공하여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한것을 비롯하여 과학, 교육, 보건, 체육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전당의 초급당위원장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옹위하고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결과이라고 평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중앙의 호소따라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자랑과 긍지를 안고 대회에 참가한 초급당위원장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이번에 소집한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당대회 못지 않게 중시하는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초급당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라고 강조하시였다.

특히 초급당위원장들의 역할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확한 수행여부가 전적으로 초급당위원장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조직자적능력, 혁명적투지와 완강한 전개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힘의 원천, 불패의 위력이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와 인민의 두터운 지지와 신뢰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일부 당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이 우리의 사업발전을 저애하며 대중속에서 우리 당의 역할을 약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이번 대회에서 지난 기간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뿐만이 아니라 초급당조직들에 내재하고있는 결함, 초급당위원장들의 역할과 사업작풍에 관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초급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데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의 기본목적은 모든 참가자들이 당적량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결함을 대담하게 시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초급당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번 대회에 중요공장, 기업소 초급당위원장들과 리당위원장들,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급기관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초급당위원장들,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과 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원만히 진행됨으로써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리정표를 마련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될 력사적인 대회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개막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해나아가고있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가 12월 23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 혁명적당풍과 과감한 실천력이 비할바없이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기층당조직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수만의 강철같은 초급당조직들을 가진 전도양양한 당으로 장성강화되여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천리미답의 초행길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왔다.

혁명과 건설의 앞길에 중중첩첩 겹쌓이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세상에 없는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력,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우월성과 사회주의대풍모가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주체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이 기층조직인 초급당조직들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천만군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인민복무전에로 총궐기시킨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행로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당초급당위원장들의 대회합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초급당조직들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통일체로 다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 경험들과 결함,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에는 당조직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전위조직으로 꾸리고 사회주의수호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초급당위원장들과 중앙과 지방의 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가 열리게 되는 평양체육관은 붉은 당기와 여러가지 장식물들로 단장되여있었다.

대회장으로 들어서는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시여 우리 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혁명적당, 인민대중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빛내여주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박봉기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박태성동지, 조연준동지와 중앙과 도의 당책임일군들, 모범적인 초급당위원장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개회사를 하시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로동당만세》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주체혁명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보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

그는 초급당을 중시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이며 초급당의 강화이자 전당의 강화이고 혁명위업의 승리이라는것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관통되여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필승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주체적인 기층당조직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완벽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기층당조직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기층당조직들을 먼저 내오고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빠른 기간에 당창건위업을 독창적으로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조직들을 합리적으로 내오도록 하시고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초급당의 위치와 임무, 초급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당리당비서강습회를 조직하여주시고 《리당비서들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고전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여 리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과 리당비서들이 지켜야 할 10가지준칙을 제시하신것은 초급당사업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를 잘 꾸리고 집체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킬데 대한 문제,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대중령도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초급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 의하여 기층당조직건설의 만년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초급당강화를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시고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당의 기층조직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에 남아있던 재래식사업체계와 방법을 백지화하시고 새로운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하시였으며 당사업방법과 작풍도 위대한 수령님식으로, 항일유격대식으로 혁신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초급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군중과의 사업을 현행을 기본으로,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으며 중앙당일군들을 비롯한 능력있는 일군들을 초급당, 리당의 책임일군으로 파견하시면서 크나큰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초급당조직들은 명실공히 주체의 혁명적당, 수령의 당의 기층조직다운 면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우리 당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초급당조직들이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당, 행정배합을 잘하며 사회주의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비상히 강화된 초급당조직들이 있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들이 금성철벽으로 다져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을 강철같은 초급당조직들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시고 초급당위원장들을 주체의 당기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는 혁명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의 기사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우리 당력사에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급당중시사상과 령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투쟁에서 초급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기본으로 하여 당조직들의 사명과 임무, 당생활지도의 목적과 방향도 새롭게 밝혀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초급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더욱 심도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초급당은 포병구분대의 화력중대와 같으며 우리 당을 백절불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지름길은 초급당과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있다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초급당의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명시한 가장 과학적인 당건설사상이며 우리 당을 혈기왕성하고 전투력이 강한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하는 필승의 기치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을 찾아 정력적으로 이어가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정치사상사업을 철입식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에게 훌륭한 로동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초급당사업의 고귀한 지침들이 마련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전반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초급당조직들은 당정책옹위전, 인민복무전에서 기적적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창출하며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굳건히 보위해나갈수 있었다.

북부피해복구전역에서 세상에 없는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력,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우월성과 사회주의대풍모가 힘있게 과시되고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앙양과 비약적성과들이 이룩된 오늘의 대승리는 모든 초급당조직들이 당의 전투적호소에 일시에 화답하여 천만군민을 총궐기시켜나가도록 이끄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위원장들이 우리 당의 기본전투단위를 책임진 야전지휘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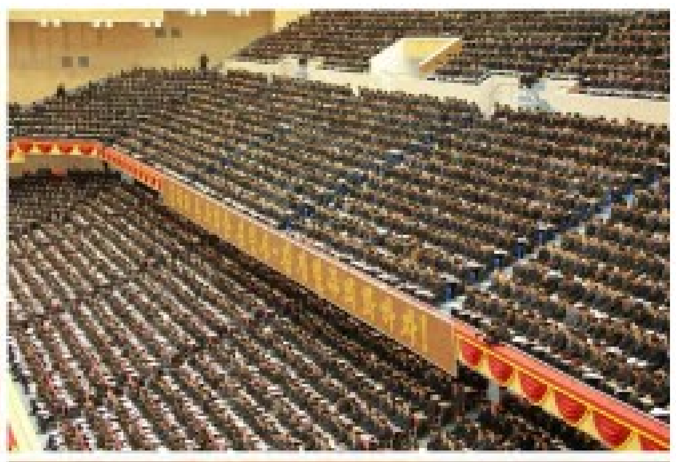
초급당위원장들을 당의 핵심으로 내세워주시고 자그마한 성과도 귀중히 여기시여 사랑의 친필과 감사문도 보내주시며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초급당위원장들의 정신세계와 일본새가 일신되여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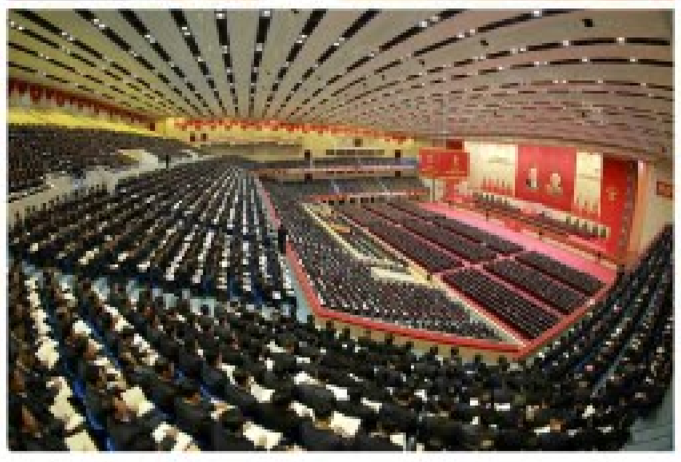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드팀없는 신념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만장약된 강력한 전투대오로,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잇닿아있는 혁명의 전초기지로 전변시키신것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라고 강조하였다.

3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될 력사적인 대회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개막





2면에서 계속

보고자는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그는 우리 당의 백승의 력사는 기층당조직중시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 성스러운 력사이며 초급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위업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찬 년대기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의 시대가 펼쳐진 지난 5년간은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 조선로동당의 백절불굴의 기상과 위력이 높이 떨쳐진 승리와 영광의 나날이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초급당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초급당조직들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정예화된것이라고 말하였다.

초급당조직들이 사상중시론을 일관하게 구현하여 5대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불굴의 투사들로 키우고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초급당조직들에서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수많은 당세포들이 충성의 세포대렬에 들어서고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반이 더욱 억척같이 다져졌다고 말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운것은 초급당사업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초급당조직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인민적시책들이 누구에게나 뜨겁게 미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넣음으로써 온 나라에 어머니당에 드리는 고마움의 노래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짜고듦으로써 새 세대청년들이 우리 당의 후비대,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영웅청년문화의 창조자로 억세게 자라나 시대를 선도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초급당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한데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초급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대중의 심장속에 우리 당의 사상과 신념,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새겨주어 새로운 조선속도,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조국이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으로 강산이 변하는 대혁신, 대비약으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령마루에로 솟구쳐오르고있는 위대한 승리에는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온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위력이 안받침되여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투쟁행로에는 당의 위업을 믿음직하게 받드는 초석이 되고 뿌리가 되여온 초급당위원장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성실한 노력이 뜨겁게 슴배여있다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헌신으로 우리 당의 성스러운 투쟁사에 빛나는 삶의 자욱을 아로새긴 전세대 초급당위원장들의 뒤를 이어 오늘 수많은 초급당위원장들이 당사업의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고 말하였다.

전당의 초급당조직들이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는 신념의 결정체로, 수령과 대중을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며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제끼는 충정의 전위대오로 굳건히 다져진것은 우리 당의 남다른 긍지이며 주체의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된 거대한 승리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백절불굴의 당,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나서는것이 당의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며 우리 당이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소집한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현시기 초급당사업이 당의 숭고한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부 초급당조직들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드는데 응당한 힘을 넣지 못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바로하지 못하고있으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들이 나타나고있는것은 초급당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심각한 결함들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초급당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심각하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당의 숭고한 뜻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현시기 우리 당은 초급당조직들이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초급당을 강화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고 당의 기층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초급당조직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초급당조직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훌륭히 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안녕을 결사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그에 감히 도전하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가차없이 짓뭉개버려야 한다.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에 철저히 보고하고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말씀과 지시를 즉시접수, 즉시대책,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은 모든 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당세포강화이자 초급당강화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세포위원장들과의 사업,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고 그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은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적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감으로써 대중을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의 성새로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청년사업을 중시하고 자기 단위를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 모든 청년들을 창조의 거인, 사회주의미풍선구자들로 키우며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의 군중적지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 유일관리제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5대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적사상공세를 계속 강화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 백절불굴의 투사들로 준비시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불패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 자강력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억척의 기둥으로 세워주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반제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불순출판선전물과 부르죠아생활양식, 이색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상투쟁과 조직적통제의 도수를 계속 높여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된바람을 일으켜 집단과 사회에 건전하고 고상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에서 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첨입식사상공세를 들이대여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은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킬데 대한 위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구현하여 어머니의 손길로 사람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자기 단위 종업원들과 주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면으로 계속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될 력사적인 대회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개막

3면에서 계속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강하게 내밀어 그 근원을 완전히 들어내야 한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에서 당의 선군혁명로선,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현시기 초급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화력중대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것이다.

초급당조직들은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자강력을 키워 수입병을 불사르며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들을 반드시 앞당겨 점령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행정경제일군, 기술일군들을 내세워주어 그들이 신심을 가지고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도록 하여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군자리로동계급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집단적경쟁운동을 힘차게 벌려 자기 단위를 만리마시대의 전형단위, 본보기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리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며 자기 농장을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과 같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초급당위원장들은 자기 단위를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초기지로 튼튼히 다지는 열혈의 투사가 되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앞채를 메고 내달리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높은 조직전개력, 능숙한 군중공작방법, 현대과학기술지식과 다방면적인 상식,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갖추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줄 아는 실력가, 팔방미인이 되며 사람들로부터 《우리 초급당위원장》으로 불리우는 김정은시대의 참된 당일군이 되여야 한다.

도, 시, 군당을 비롯한 상급당조직들은 초급당위원장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며 초급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보고자는 모두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총돌격, 총매진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가마포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장 최동필, 천성청년탄광 초급당위원장 리정길,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초급당위원장 리용월, 회령시제1인민병원 초급당위원장 채란, 체육기술련맹 초급당위원장 리성태, 리원군산림경영소 초급당위원장 김경남, 량강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당위원장 림인남,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형기계직장 초급당위원장 리명환,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초급당위원장 신춘학,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초급당위원장 김인성,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초급당위원장 정명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당위원장 서현철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초급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참된 혁명가들로 키우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진행해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가마포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먼바다에서 일하는 어로공들의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종업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전과정이 충실성교양으로 일관되게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 과정에 지난 세기 80년대에 이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뜻밖의 정황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한몸바쳐 보위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이 태여나게 되였으며 모든 종업원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되였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초급당위원회는 강사, 종업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천만군민의 정신적기둥인 태양의 성지를 결사보위하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 한몸바치는 백두산초병으로서의 영예를 지켜가도록 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정치사상사업을 들끓는 전투현장에 접근시켜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말씀을 종업원들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고 당세포들에서 당생활의 모든 계기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일관되도록 하였다.

생산과정에 나타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사상투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감화력이 큰 기동예술선동대공연을 통하여 진행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도록 하였다는 토론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리원군산림경영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당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군중의 힘과 지혜, 정신력을 적극 발동함으로써 산림조성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 과정에 사람들의 특성과 심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짜고들면 옳은 방법론도 나오고 놀라운 성과도 이룩할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

토론자들은 과학기술강국건설은 곧 수령옹위전, 당정책사수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적량심, 과학적량심을 지니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할 때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고 강조하였다.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직관선동과 영예게시판을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음으로써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련이어 창조할수 있은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죄를 지은 사람들도 품에 안아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얻은 경험은 당일군들이 자식을 위하여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심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고충을 풀어줄 때 집단이 단합되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이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은 당조직의 몫이라는 확고한 립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식량과 땔감, 부식물을 원만히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모두가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바다의 정복자답게 말겨진 홍건도간석지 1단계 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청년들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천성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에 큼직한 일감들을 맡겨주고 자체의 힘으로 헤쳐끼도록 떠밀어주었으며 그들모두를 평양의 불빛을 지키는 석탄전선의 선봉투사들로,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본학술단위인 강좌당세포들의 사업을 당의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관철에로 지향시키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 과정에 교원들을 높은 자질과 고상한 풍모를 지닌 교육자, 교양자로 준비시키고 학생들의 학습열풍을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해나간다면 교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체득하게 되였다.

회령시제1인민병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의사, 간호원들을 우리 당의 인민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 그들모두를 인간생명의 참다운 기사로 튼튼히 준비시켰다.

당의 보건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일군들부터가 의사, 간호원들의 정치적생명의 기사가 될 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는 실천적경험을 얻게 되였다.

체육기술련맹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전문체육기술발전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안고 체육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당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식 경기원칙과 전법창조를 과학기술로 담보해나가도록 당적지도를 바로 해나간다면 국제경기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다는 철리를 귀중한 경험으로 새겨안았다.

토론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기층당조직일군들이 서야 할 좌지는 대중이 있는 곳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정서와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 때 해당 단위 사업이 우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원만히 진행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토론들에서는 일부 기층당조직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이 언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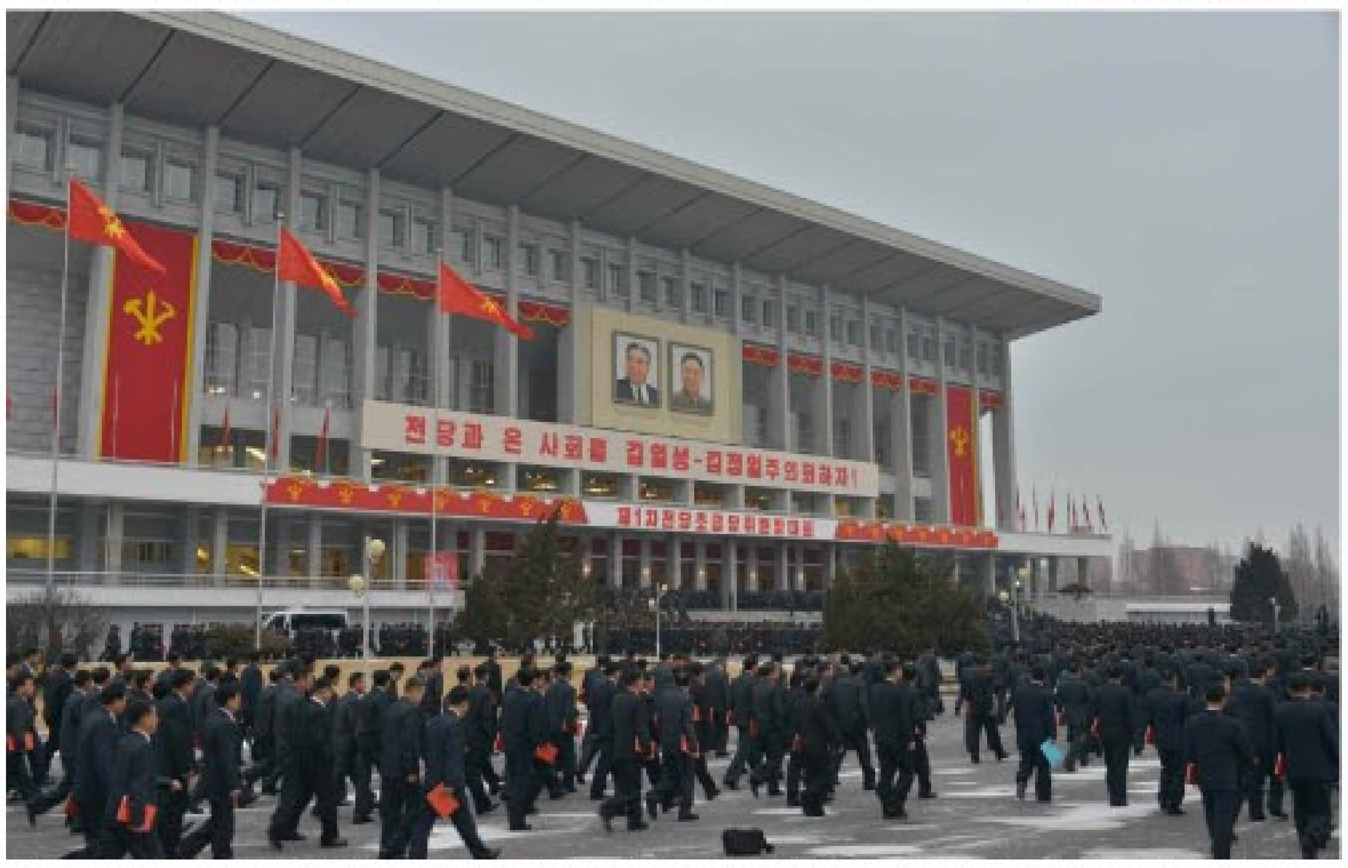
일군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바로하지 않아 국토관리를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들이 당이 의도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비판하였다.

결함에서 찾게 되는 교훈은 초급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지 않는다면 당정책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여도 그 생활력을 발휘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모든 기층당조직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결사대로 강화해나갈 불같은 결의들을 다짐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타이왕국 국왕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각하께서 타이국왕으로 즉위한 나에게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귀국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타이왕국 국왕

마하 바지라롱콘

2016년 12월 23일 방코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베네수엘라 쑤끄레재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베네수엘라 아야꾸초대원수 안또니아 호세 프란씨스꼬 데 쑤끄레 이 알깔라력사유산연구재단(쑤끄레재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베네수엘라군사종합대학 우고 차베스군사사상강좌 조정자 호세 곤쌀레스 알깔라 모랄레스가 19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떼가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23일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베네수엘라 쑤끄레재단이 명예성원으로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베네수엘라 아야꾸초대원수 안또니아 호세 프란씨스꼬 데 쑤끄레 이 알깔라력사유산연구재단(쑤끄레재단)이 명예성원으로 모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명예성원증서를 전달하는 모임이 16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베네수엘라 쑤끄레재단, 통일된 좌익당, 모두를 위한 조국당, 군사종합대학, 외무성 등 여러 단위 인사들, 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증서를 재단총재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총재 챤말리오 에르네스또 꼬로넬 곤쌀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개 나라는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조선에서는 선대수령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마련된 막강한 군력이 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진두에 서계시는 김정은동지께 명예성원증서를 드리는것은 우리의 더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다.

군사종합대학 우고 차베스군사사상강좌 조정자 호세 곤쌀레스 알깔라 모랄레스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지략과 담력, 령군술에 대하여 세계는 잘 알고있다, 인민을 사랑하시고 일심단결을 핵방으로 다져나가시는 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은 승리만을 떨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김 정 은

선군혁명천만리길에 력력히 빛나는 거룩한 자욱

내 나라,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최고사령관기가 휘날린다.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힘차게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

성스러운 그 기폭속에 무적필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업적이 어려와 천만군민의 마음은 뜨겁다.

오늘은 위대한 선군태양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돐이 되는 날이다.

한평생 성스러운 애국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지키고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정의의 수호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오늘도 력력히 빛을 뿌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선군!

이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이고 드팀없는 혁명신조, 혁명의지였으며 력사에 길이 빛나는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거창한 혁명실천이였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백두산혁명강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오로!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령도로 빛내여주신 백두산혁명강군,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은 수령결사옹위전이며 총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최강의 무기이라고 하시며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을 못 잊는다.

우리 조국앞에 실로 엄혹한 시련이 닥쳐들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앞길에 력사적인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

이는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고귀한 전통이다.

인민군대에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여 전군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야말로 만대에 길이 빛날 업적중의 업적임을 력사와 현실은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하여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한점의 습기도 스며들지 않게 정히 가슴에 품고 최후를 마친 인민군군인들, 삼단같은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생명을 바쳐 혁명적구호문헌들을 구원한 무재봉의 영웅전사들…

그들만이 아닌 이 땅의 수천수만의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수령결사옹위의 넋이 깊이 뿌리내렸다.

오늘 우리는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주름잡으시며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 거연히 솟아 빛나는 철령은 오늘도 가슴뜨거운 만단사연들을 전하고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우리 장군님 철령을 넘으시기를 그 몇번이였던가.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험준한 철령길을 가고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언제인가 일군들은 부디 사납고 험한 철령만은 더는 넘지 마시기를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온 나라 인민의 념원을 담고 절절히 울리는 그들의 목소리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도 그 령이 사납고 험한 령이라는것을 잘 안다. 령을 톺아오르다가 아차 실수하면 천길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다는것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철령을 넘나드는것은 철령너머에 사랑하는 나의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며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이 언땅에 배를 대고 적진을 지켜보며 밤을 지샐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이 최고사령관을 생각하며 온몸이 얼어드는것도, 온몸이 물크러지듯 찌물쿠는 무더위도 참아내며 전연초소를 철벽으로 지키고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들을 자주 찾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수 없다. …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은 이렇듯 열렬한 사랑과 믿음을 안고 준엄한 최전선을 찾고찾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헌신의 장정이였다.

오성산, 선군의 산악에서는 또 어떤 력사의 메아리가 들려오는것인가.

장군님, 위험합니다. 안됩니다. 절대로 오르실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지에 우리 군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최고사령관이 오늘같은 궂은 날씨에 전선의 험한 령길을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며 칼벼랑길을 톺으시였다.

세찬 폭우에 뿌리채 뽑히운 잡관목들이 나딩굴고 사품치는 흙탕물에 씻기워 앙상하게 드러난 돌뿌리들과 아찔한 낭떠러지들…

야전차가 헛바퀴질하며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위험천만한 순간,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차체에 어깨를 들이대시였다. 그러시고는 흙탕물이 휘뿌려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차를 미시며 한치한치 칼벼랑길을 톺으시였다.

력사에 묻노니, 어느 시대, 어느 위인전의 갈피에 이런 화폭이 새겨진적 있었던가.

어이 오성산의 칼벼랑길만이랴. 최전연의 1211고지, 원쑤들의 총구가 도사린 판문점초소와 풍랑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고 찾으신 초도 등 끝없이 이어진 선군길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의 세계가 그토록 력력히 어려있어 오늘도 천만군민은 이 땅의 한치한치를 무심히 대하지 않는다.

선군혁명령도의 길우에서 오늘도 들려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

고난의 행군의 전기간 나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인민,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만을 안고 살았다. …

바로 그것이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여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열렬한 애국의지로 피끓이시며 이 땅우에 선군혁명력사를 갑동길이 쓰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동부와 서부, 중부를 비롯한 조국의 천리전선길들에 새겨진 감동깊은 만단사연이 그대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이다.

문자그대로 사생결단의 전선길이 멀고도 험난한 길이건만 자신께서는 현지시찰한 단위가 얼마나 될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해본적도 없다고, 현지시찰을 그 어떤 명예나 평가를 바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시며 우리 조국이 부강하고 우리 인민이 잘살게 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오늘도 천만의 심금을 울린다.

뿌리가 되리!

바로 강렬한 애국의 이 지향이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을, 그이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령도사를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만이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의 거대한 력사적의미와 그에 깃든 불멸의 업적을 헤아릴수 있는 법이다.

위대한 장군님 헤쳐가신 선군혁명령도의 길우에 오늘은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소리 힘차게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은 정말 심장으로 따르고 정으로 따를 위인이시라고, 자신께서 심신을 다 바쳐 따르고따른분은 바로 우리 장군님 한분이시라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도, 한생을 살아도 장군님을 닮고 장군님처럼 살며 일해나가자고 말하는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선군혁명천만리를 가고가신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열렬한 사랑이였고 귀중한 혁명유산인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천만군민은 이렇게 웨친다. 선군조선의 의지는 이렇게 고동친다.

본사기자 김 인 선

— 백두산강군을 이끄시던 못 잊을 나날에 —

최고사령부는 언제나 최전선에

언제인가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이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들의 간절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 유사시도 아닌 지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에 계서야 하며 위험천만한 전선시찰만은 삼가해주실것을 거듭 청을 올리였다.

일군들이 올리는 말속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소망이 뜨겁게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정은 뜨거우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단호하신 어조로 가시철조망을 친 전연지대뿐아니라 그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곳에도 가보아야 한다고, 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충실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선시찰의 길을 계속 이어가실 자신의 변함없는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이렇듯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조국수호의 최전선에 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언제나 최전선에 계시였다!

우리의 최고사령부는 언제나 최전선에 있었다!

이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위험한 전선길에 계신 우리 장군님을 뵈올던 최전연군인들의 격정넘친 체험이다.

생사고락을 군인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시찰하신 주체84(1995)년 1월 1일 저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다박솔초소에 다녀오신 소감을 피력하시며 오늘 혁명의 총창을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힘을 얻었다고 기뻐하시였다.

동행하였던 일군들의 감격도 컸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최고사령관이 새해 첫날 군인들을 찾아 축하도 하고 같이 명절을 쇤 례는 동서고금에 없을것이라고 말씀올리였다.

크나큰 흥분에 젖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으시였다.

나는 앞으로도 전호가의 흙냄새도 맡고 인민군군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포연탄우도 함께 헤치는 최고사령관이 되려고 합니다. …

이 세상 그 어느 전군사에 우리 장군님처럼 이런 열렬한 동지애, 전우애를 지니고 총잡은 군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있었던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과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우리 장군님은 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동지적사랑, 열화와 같은 전우애로 인민군대를 이끌어 승리떨치도록 하신 위대한 선군령장이시였다.

최고사령관의 리상과 목표

주체93(2004)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군인들의 전투준비정형과 물질생활보장실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부대의 전투준비상태와 후방생활토대는 그쯘하였다. 일군들은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해 얼마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계시는지 다는 알지 못했다. 인민군대의 전투준비와 군인생활문제를 푸는데서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나마 만족감에 도취되였던 일군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만들며 그들의 생활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것이 자신의 리상이고 목표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빛나는 리상과 원대한 목표.

오늘 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존엄떨치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찬 현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며 총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줄기차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삭주땅에 울린 혁명의 총성

뜻깊은 력사의 날을 맞는 오늘 천만군민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넘쳐 조국산천에 어려있는 천출위인들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더듬어보고있다.

여기에 전하려는 이야기는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다.

지금으로부터 근 7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삭주땅에 혁명의 총성을 울리신 감동깊은 사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방된 조국강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든 주체36(1947)년 10월 20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온천지로 이름난 삭주땅의 명소들을 돌아보시였다.

하얀 물김이 피어나는 내가의 풍경을 그윽한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께 한 일군이 전너편 강기슭에 있는 펑퍼짐한 바위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해드리였다.

해방전 이 일대를 한 일본인경영주가 독차지하고 돈벌이에 환장이 되였었는데 어느날인가 그자의 애첩이 그 바위우에서 뜨개질을 하다가 물에 빠져죽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왜년들은 바위를 《도깨비바위》라고 하면서 주변에 얼씬도 못하였다는것이였다.

이야기를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강산의 평범한 바위도 왜놈을 복수한것 같다고 하시며 일제식민지통치가 얼마나 악독했으면 우리 인민들이 조국의 산천초목도 치를 떨었다고 말하였겠는가고, 그런 의미에서 저 바위는 《애국바위》라고 할수 있을것이라고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때 어리신 장군님께서 그 이름이 정말 좋다고, 저런 《애국바위》가 우리 나라에 많겠다고 하시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제의 파쑈통치에 항거한 인민들의 투쟁이 도처에서 벌어졌으니 그럴것이라고 긍정하시였다.

동행하였던 일군들이 김정숙동지께 백두산시절 명사수의 사격솜씨를 보여주실것을 간청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놈을 족인 《애국바위》에 왜놈목표를 세워놓고 사격해주실데 대해 말씀드리였다.

순간 일군들모두가 놀라와하며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사격목표를 비범한 안목으로 정하시는데 경탄을 금할수 없었던 그들이였다.

오늘 목표는 정말 뜻이 있다고 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되였다.

《사격목표에는 뜻이 있어야 사수들의 심리를 작용합니다. 사수는 목표를 원쑤로 보고 쏘아야 맞힐수 있습니다.》

침략과 살륙으로 악명떨친 일제수급전범자들의 이름을 일곱개의 병에 각각 써붙이도록 하신 백두산녀장군께서는 싸창을 억세게 틀어쥐시였다.

잠시후 네방의 총소리가 련이어 울리고 《애국바위》우에 나란히 세워진 병들가운데서 좌우 두개씩의 병목이 순간에 칼로 베듯 날아났다.

백두산녀장군께서는 일제의 두목들의 이름을 써붙인 나머지 세개의 목표를 증오에 불타는 눈길로 이윽토록 쏘아보시였다.

왜 마저 쏘지 않는가고 물으시는 어리신 장군님께 김정숙동지께서는 저놈들은 일제파쑈두목들이고 우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가져다준 철천지원쑤라고 증오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자고 하시는 어머님께 장군님께서는 저 가증스러운 놈들을 자신께서 쏘겠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머없이 대견해하시며 아드님에게 같이 쏘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의 높은 뜻이 어려있고 혁명의 무게, 조국의 무게가 실린 싸창을 잡으시였다. 백두산녀장군께서 장군님의 손을 감싸쥐고 목표를 겨누시였다.

조국의 북변 삭주땅에 력사에 길이 새겨질 사변적인 순간이 왔다.

사격목표까지의 거리는 30m.

총소리가 련이어 터져나왔다.

세방의 명중탄이 왜놈목표들을 박산내버린 통쾌한 사격이였다.

새 조선의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총소리, 총소리.

김정숙동지께서 조선인민의 천추의 원한을 한순간에 풀어준것 같다고 못내 만족해하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용감한 군대 대장이 되어 제국주의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맹세를 다지시였다.

참으로 삭주땅에서 울린 그날의 총소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력사를 만대에 전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못 잊을 상일포의 메아리와 더불어 선군혁명의 총성으로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박 일 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말레이시아 15대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꾸알라 룸뿌르

말레이시아 15대 국왕
술딴 무하마드5세페하

나는 페하가 말레이시아 국왕으로 즉위한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2월 22일 평 양

○ 혁명일화와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 ○

장군님과 쌍둥이오누이병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믿음과 친어버이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령도사입니다.》

황해남도인민위원회에는 갑나무중대에서 복무하였던 한 녀성일군이 있다.

그가 바로 19년전 갑나무중대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던 량춘녀동무이다. 잊지 못할 그날 중대에 쌍둥이 오누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선철동무와 량춘녀동무를 찾으시였다. 기쁨에 넘쳐, 영광에 넘쳐 한달음에 달려온 쌍둥이오누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하사 량선철외 한명 명령대로 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애에 넘치신 눈길로 그들을 대견히 바라보시며 물으시였다.

나이는 몇살인가, 입대년도는 언제인가, 건강은 어떠한가…

그러시다가 문득 쌍둥이의 군사칭호가 서로 다른것을 알아보시고 지휘관들에게 원래 우리 부모들은 쌍둥이를 키울때 서로 다른 옷을 해입히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으로 군사칭호도 똑같이 주자고 하시며 사랑의 조치도 위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두 병사를 자신의 량옆에 세워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살의 량볼 붉은 한쌍배기 병사였던 량춘녀동무가 오늘은 도의 인민생활향상에서 주요부문을 책임진 어엿한 일군으로 자라났으니 그 성장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은 그 얼마이련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영광을 지니고 만사람의 축복속에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보내고있던 쌍둥이오누이에게 뜻밖에도 아버지가 나라앞에 큰 죄를 짓고 법적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쌍둥이병사의 눈앞은 삽시에 캄캄해졌다.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들을 그토록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은정에 보답은 못할망정 나라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날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원망만이 꽉 차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그날엔 그처럼 유정하게 들려오던 파도소리까지도 상처입은 마음을 사정없이 때리는것 같이 여겨졌다.

그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허비는것은 영원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가겠다고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다진 그 맹세를 더는 지킬수 없게 되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준것은 태양보다 더 뜨겁고 바다보다 깊은 위대한 사랑이였으니 그것은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보살피심이였고 한량없는 은정이였다.

주체88(1999)년 3월 어느날 갑나무중대가 속해있는 부대지휘부의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갑나무중대 군인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거기에는 쌍둥이오누이병사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찍은 사진도 있었다.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시였다.

부대의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쌍둥이병사의 아버지가 과오를 범한데 대하여, 그래서 부대일군들이 해당 일군들을 만나보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했다는데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가슴이 아프신듯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쌍둥이오누이가 군사복무를 잘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쌍둥이가 아버지문제로 하여 고민하면서 군사복무에서 지장을 받고있지 않을가 하는 념려가 어린 물으심이였다.

군사복무를 잘하고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해전 갑나무중대를 돌아보실 때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다가 결연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그때 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쌍둥이오누이 아버지가 법적제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문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군사복무도 하였기때문에 무턱대고 아버지를 따라가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잘 이끌어주어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 크나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으랴.

우리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들이라 불러주시며 사랑의 한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접한 쌍둥이병사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눌러오던 오열을 마침내 터뜨리고야말았다.

《아버지장군님, 우리들은 장군님만 끝까지 믿고 살겠습니다.》

허나 한번 생긴 마음속상처는 잘 아물지 않는 법이다.

하기에 쌍둥이병사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육친적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만 흘러들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조선로동당원이 된 쌍둥이오누이는 군관학교로 가게 되였다.

세월이 흘러 갑나무중대에서 군관으로 복무하던 량춘녀동무는 주체93(2004)년 10월 또다시 눈물없이 받아안을수 없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언제나 쌍둥이오누이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량춘녀동무의 나이가 27살이 되였다는것을 아시고 빨리 제대시켜 대학에서 공부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사랑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는것이였다.

안겨주신 그 사랑도 끝이 없는데 오늘은 나이찬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듯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니 이들의 가슴속에 넘쳐나는 격정을 과연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이뿐이 아니였다.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쌍둥이가 서로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로부터 쌍둥이의 결혼식은 한날한시에 한장소에서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했다고, 그들의 결혼식을 당에서 맡아 잘해주자고 하시며 결혼식날자와 장소까지 정해주시고 사랑의 결혼상과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한생을 자식을 위해 마음쓰고 자식들을 보란듯이 내세우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이 부모들의 진정이다.

허나 쌍둥이오누이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베풀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대도 비기지 못할 가장 다심하고 뜨거운 사랑,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쌍둥이병사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고 쌍둥이병사는 그이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꽃피운 장군님의 아들딸이였다.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이 사랑과 정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뜨겁게 이어지고있다.

4년전 8월 갑나무중대를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중대교양실에 모셔진 기념사진을 보시며 이 군인들이 보고싶다고,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행사에도 참가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량춘녀동무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도 지니게 되였다.

사랑과 믿음에는 충정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제날의 쌍둥이병사 량선철동무와 량춘녀동무는 성스러운 조국보위초소에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한길에서 참된 보답의 순간순간을 이어가고있다.

우리 장군님과 쌍둥이병사!

이것이 어찌 쌍둥이오누이만이 받아안은 인생의 영광이라고만 하랴.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꽃이 피고 열매맺듯이 우리 장군님처럼 병사들과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정과 열이 있어 이 땅에 꽃펴난 인간사랑의 화원은 영원히 만발할것이다.

본사기자 강 원 남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천여리 두만강전역에 굽이쳐흐른 원군의 대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 우리 조국 북변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또다시 창조되였다. 폐허나 다름없던 두만강기슭의 피해지역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동체가 되여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전화위복창조의 60여일, 군민협동작전의 이 나날은 군대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군민대단결을 더욱 굳게 다져온 잊지 못할 나날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련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산물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인민군대가 왔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무더기비와 돌풍으로 파국적인 후과가 빚어졌던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사들을 맞은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은 목이 꽉 메여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피해지역 인민들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급파하여주신 인민군대를 눈물속에 맞이한 그때부터 이곳 인민들은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내내 가슴후더워오름을 금치 못했다.

북구전투의 첫시작부터 불이 번쩍 나게 일판을 벌리면서 《인민을 돕자!》는 구호밑에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인민군군인들, 그들의 전투장들에서는 언제나 이런 목소리만이 울려나왔다.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조국의 북변땅에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금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해줄 일념으로 가슴끓이는 군인들이였다.

얼마나 훌륭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사들인가.

인민군대가 주동이 되여 항일의 원군, 원민전통이 창조된 두만강연안 북부지대에 선군시대 군민일치의 새 력사를 쓰라고 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두만강전역의 인민들은 너도나도 원군의 길을 이어갔다.

천여리 두만강전역의 인민들은 인민군군인들과 어깨를 겯고 군민협동작전을 힘있게 벌려갔다.

경흥군 일군들과 인민들은 북변땅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급파되여온 그길로 물젖은 피해지역에 진입하여 단숨에의 기상을 떨쳐가는 인민군군인들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갔다. 농장로동자구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읍지구의 녀맹원들을 비롯한 군내인민들속에서는 이른새벽이면 살림집건설장까지 꿀재들을 날라다놓는것이 하나의 일과로 되였다. 혼석운반과 혼합물보장을 맡아나선 인민들의 물심량면의 원호는 인민군군인들로 하여금 충막치기공사에서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게 하고 살림집건설에서 남먼저 승전포성을 울리게 하였다.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과 온성군, 경원군의 일군들과 인민들모두가 격전의 낮과 밤들에 인민군군인들과 한전호에 서있었다. 혼합물을 이기고 벽체를 쌓아가는 인민군군인들곁에는 언제나 삽과 물통을 들고 믿음직하게 조력하는 인민들이 있었고 낮에도,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 노래소리 기운차게 울려가는 가두녀성들의 열기띤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

군대와 인민이 하나가 되여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던 그 나날 천여리 두만강전역에서는 인민군대를 위하는 가지가지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또 그 얼마나 가슴뜨겁게 전해졌던것인가.

인민의 재산과 리익을 털끝만큼 축내는것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우리 군대를 생각하며 말린 풀고기를 안겨주기 위해 온 마을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 마련했다는 회령시의 말린 풀고기 풍경에 깃든 이야기며 인민을 위한 살림집건설로 철야격전을 벌려가는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온 가족이 지성다해 마련한 원호물자를 안고갔다는 연사군 연사초급중학교의 한 교원의 소행과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는 미더운 병사들에게 풍물을 마련해가지고간 무산군 인민들의 소박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성의를 다해 준비한 주먹밥을 소중히 안고 인민군군인들을 찾아간 경원군 인민들 그리고 스스로 군인들을 찾아와 리발도 해주고 군복도 정성껏 손질해주어 병사들이 친누이, 친어머니처럼 친근하게 부르며 따르던 녀맹원들을 비롯한 원군미풍의 주인공들은 또 그 얼마나 많고많았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병사들이 인민을 생각하며 위해줄수록 두만강전역에서는 인민군군인들을 위하는 원군의 대하가 더욱 뜨겁게 굽이쳐흘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남먼저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달려온 인민군군인들로부터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 말을 귀에 새기던 그때부터 온성과 회령, 무산과 경흥 등 두만강전역의 인민들속에서는 낮너로소를 가리지 않고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물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병사들을 찾는것이 하나의 기풍,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였다.

오늘도 인민군군인들이 다정한 샘물초소어머니, 누이들이라고 잊지 못해하는 온성군 남양로동자구의 녀성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꽃피워가는 인민군군인들을 위하여 수십리구간에 샘물초소들을 꾸려놓고 맑고 시원한 샘물을 길어다 공급하는 남양의 녀인들의 진정에 병사들은 누구나 눈굽을 적시며 이렇게 외웠다.

《병사들을 울리는 뜨거운 샘물입니다!》

뜨거운 샘물, 이 말속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병사들을 위하는 두만강전역 인민들의 원군의 열기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전화위복창조의 60여일동안 천여리 두만강전역에는 항일의 그날처럼 원군의 대하가 용용히 굽이쳤다.

북부피해지역 이르는 곳마다에 희한하게 일떠선 사회주의선경거리들과 선경마을들, 그것은 단순히 세멘트와 철근, 목재의 응집체가 아니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군대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안아온 자랑찬 창조물들이였다.

본사기자 김 치 곤

총대가정에서 꽃펴나는 이야기

야 외 훈 련 장

천내군 금성리에 가면 《군대집》으로 불리우는 가정이 있다. 세 아들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최선규, 함순희부부의 가정이다.

세 아들의 아버지인 최선규동무는 인민군대병사는 무엇보다도 몸이 튼튼해야 한다고 하면서 집뜨락에 자식들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철봉과 평행봉을 비롯한 훈련기재들을 설치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크지 않은 집뜨락에는 야외훈련장이 생겨나게 되였다.

세 아들은 제대병사인 아버지의 뒤를 따라 매일 아침 운동을 진행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여기였다.

뿐만아니라 어머니인 함순희동무는 아들들의 학습방조와 교양에 힘을 넣어 자식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도록 꾸준히 이끌어주었다. 이렇게 되여 최선규, 함순희부부의 세 아들은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기둥감들로 자라나 조국보위초소에 서게 되였다.

조국을 받드는 총대감들속에는 한알의 쭉정이도 없어야 천리방선이 철벽의 요새로 더욱 굳건해진다는것을 뜨락에 생겨난 자그마한 야외훈련장이 말없이 속삭여주고있다.

경 쟁 바 람

렬일곱명의 영웅을 낳은 룡천군 영웅신암고급중학교 졸업생들중에는 신암협동농장 제5작업반 농장원 최윤철동무의 자식들도 있다.

어제날 병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늘은 세 아들이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섰다.

이들 삼형제는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면서 서로 경쟁을 걸었다. 누가 먼저 모교의 열여덟번째 영웅이 되여 돌아오는가를.

제일먼저 군복을 입은 맏이는 전투정치훈련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 고향에 희소식을 보내왔고 형에게 뒤질세라 동생들도 군무생활을 잘하고있는 자랑소식을 고향집에 보내여왔다.

아버지인 최윤철동무도 아들들의 경쟁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영광의 대지를 기름지게 가꾸어가는데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아버지와 세 아들이 벌리는 말없는 경쟁, 이것은 총대가정의 영예는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우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총대가정의 본분을 다해나가는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온 나라의 총대가정들에 이런 경쟁바람이 일고있다.

전 선 으 로

대홍군 운흥협동농장 농장원들인 리길수, 방명희부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다.

중학시절부터 재간둥이로 떠받들리우는 자식들을 늘 자랑으로 여긴 리길수, 방명희부부는 아들들이 자라면 소질에 따라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하고싶었다.

그러나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조국수호의 험난한 강행군길을 헤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이들부부는 가정의 행복, 자식들의 장래가 무엇에 의하여 지켜지고 꽃펴나는가를 심장으로 새겨안게 되였다.

총대중시, 군사중시가 매 가정의 가풍으로 될 때 우리 조국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 아들은 각자의 재능과 희망우에 조국의 운명이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리길수, 방명희부부의 세 아들은 조국보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전선행렬차에 몸을 싣게 되였다.

총대가정의 긍지를 안고 이들부부는 오늘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맡은 농사일에서 언제나 모범을 보이고있으며 원군사업에도 앞장서고있다.

본사기자 리 신 향

영웅의 모교에 차넘치는 조국보위정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속에서 조국보위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구장군 룡문로동자구에는 90년대의 첫 영웅 김광철영웅의 모교인 구장군 김광철고급중학교가 있다. 학교본청사의 2층, 그곳에 영웅이 공부하던 교실이 있다. 학교의 학생들은 김광철영웅의 체취가 어려있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었다.

《우리는 비록 김광철영웅의 얼굴은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매일 김광철영웅과 함께 앉아 공부하는 심정으로 학습하고있습니다.》

영웅의 모교에서 만났던 학생들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말이다. 영웅은 이렇게 영생하고있다.

학교에서는 김광철영웅의 학창시절을 따라배우기 위한 해설선전사업과 영웅을 키운 담임교원과의 상봉모임을 자주 조직하고있다.

영웅을 낳은 학교라고 하여 다음번 영웅이 절로 자라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영웅의 교실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박수소리가 들려왔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에서 학생들이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주제로 지은글발표모임을 진행하고있었다.

교원 최은순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 학급학생들은 머지않아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모두가 김광철영웅이 복무하던 최전연초소로 달려나갈것을 탄원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우리는 뜨거운 격정을 안고 영웅의 반신상앞에 섰다. 김광철영웅과 영웅의 모교가 받아안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는 해설자들도 다름아닌 학교의 학생들이였다. 그들의 얼굴에도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제2의 김광철이 될 꿈과 포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이런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난 새싹들이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감들로 자라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총대병사가 되자.

이것이 영웅의 모교에서 영웅의 체취를 느끼고 영웅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자라난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리상이고 포부이고 맹세였다.

본사기자

전화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조국수호정신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중구역 리철민고급중학교에서- 김 광 림 찍음

어머니의 소원

가정을 총대와 이어놓고 당과 수령을 옹위하고 받들어나가는 것을 유일한 가풍으로 삼는 미덥고 자랑스러운 총대가정들속에는 형제산구역 학산동 81인민반 리춘실가정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이 가장 값높은 애국적인 삶입니다.》

리춘실동무와 그의 자식들의 가슴속에는 군모의 오각별과 군복의 견장이 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리춘실동무의 남편은 한생 군복을 입고 살아왔으며 그 길에서 모든것을 바치였다. 리춘실동무도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의 길에 바친 제대군인이였다. 군사복무의 나날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한생의 가보로 간직한 리춘실동무와 그의 남편에게 있어서 자식들모두를 수령결사옹위의 전초선에 내세우는것은 공통된 지향이였다.

그들은 자식들을 끌끌한 총대병사들로 키우기 위해 마음을 쓰고 온갖 품을 들이였다. 일과도 군대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대한 지원의 길을 함께 걸으며 자식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씨앗을 묻어주었다.

학교를 졸업한 자식들이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날 때면 리춘실동무는 절절히 당부하군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제일 앞자리에 너희들이 서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그 당부를 새기고 맏딸 서영동무의 뒤를 이어 6명의 자식들이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벽면에 걸려있는 7개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을 보면서 리춘실동무는 자식들에 대한 남다른 긍지, 어머니의 행복을 가슴뿌듯이 느끼군 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다섯명의 딸들이 제대되여왔다. 제대배낭을 메고 집으로 들어서는 자식들을 맞을 때마다 리춘실동무의 가슴한구석에는 서운한감이 갈마들었다.

어느날 서향란동무가 어머니에게 한장의 사진을 꺼내놓았다. 의젓하고 름름한 사진속의 군관이 대번에 리춘실동무의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제일 앞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전 최전연초소의 부사수가 될 결심을 했어요.》

가정을 이룬 딸들이 귀여운 자식들을 낳을 때마다 리춘실동무는 말하군 했다.

《우리 가정에 군대감이 또 태여났구나.》

지금 조국보위초소에는 총대가정의 가풍을 지켜 남포혁명학원을 졸업하고 혁명의 군복을 입은 아들 서남혁, 서남일동무들이 서있다. 그들이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앉아 즐거운 마음으로 펼쳐보군 한다.

꼭 영웅이 되여 어머니의 품에 떳떳이 안기겠다고 불같은 맹세들을 적어보내는 아들들의 미더운 모습을 그려보며 리춘실동무는 기쁨에 넘친 어조로 말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총대가정에 꼭 영웅이 생길게다.》

이 나라 총대가정들의 생활은 이렇게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조 경 철

고성령의 샘처럼 진함없이

정평군사회급양관리소 종업원들

정평군에 위치한 고성령에는 널리 알려진 샘터와 아담한 차집이 있다. 그러나 이 차집의 주인들인 정평군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임옥실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10여년전 여름 어느날 정평군의 인적드문 령길우에 정도록 서있는 한 녀인이 있었다.

그가 바로 려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성령의 봉사초소를 맡아나선 임옥실동무였다. 그는 방금전 령길을 넘어간 군인들의 모습을 그려보고있었다. 땀젖은 군복차림으로 고성령의 샘물로 목을 축이고는 또다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군길을 다그쳐가던 군인들…

그 미더운 모습을 가슴에 안아볼수록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병사들에 대한 고마움의 정이 가슴후덥게 고여올랐다. 우리의 보람찬 삶도, 보다 좋을 래일의 행복도 저런 군인들이 있어 굳건히 담보되는것 아닌가.

가슴을 파고드는 이런 생각은 열정적인 성격을 지닌 그의 심장을 불덩이처럼 달구어주었다.

(우리도 원군길에 나서자!)

고성령의 봉사초소를 함께 지켜가던 종업원들도 임옥실동무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원군길에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참으로 수없이 아로새겨졌다.

우리 초소로 정한 어느 한 구분대의 군인들에게 여러해동안 수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고 령길을 오가는 군인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해주었으며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도 물심량면의 지성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해 겨울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10여명의 제대병사들은 이곳 종업원들의 뜨거운 지성에 감동되여 이렇게 말하였다.

《고성령어머니들의 그 진정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듯 고성령의 샘처럼 정갈한 마음안고 원군길을 걷고 또 걸던 그들의 가슴속에 저도모르게 소중한 지향이 간직되게 되였다. 여러해전 마식령스키장건설이 진행되던 나날이였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일당백용맹을 과시하는 군인건설자들에게 임옥실동무를 비롯한 고성령차집의 종업원들도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여러차례나 떠나보내였다.

그러던 어느날 임옥실동무와 종업원들은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멀고 험한 마식령의 건설장까지 찾아오시여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을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고무격려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생각할수록 그들은 자기들이 바쳐온 성의가 너무도 부족한것만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저녁 임옥실동무는 종업원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은 기회에 이렇게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때로 멀리 령길쪽을 바라보다가도 쉬임없는 선군령도로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녀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고성령을 지나시다가 문득 우리 일터에 들려가시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하군 했다고,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병사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고 진정을 터놓는 임옥실동무의 모습은 종업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책임자동무의 마음이자 우리 모두의 심정이에요. 우리 집짐승도 더 키르고 산나물채취도 더 많이 해서 원호사업을 더 본때있게 하자요.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자요.》

고성령의 샘처럼 맑고 깨끗한 량심을 바쳐 원군길을 끝끝이 이어가려는 그들의 맹세는 바로 이런 지향으로 하여 더욱 불타게 되였다. 오늘도 임옥실동무와 이곳 봉사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자욱자욱 따라서며 원군길을 힘차게 걷고있다.

본사기자 장 정 철

제32차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축전 진행

제32차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축전 《국가과학원 과학연구성과전시회-2016》이 20일부터 23일까지 국가과학원에서 진행되였다.

국가과학원산하 분원, 연구소, 리과대학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부문별분과들로 나뉘여 진행된 축전에서는 400여건의 가치있는 성과자료들이 소개되였다.

축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하였다.

《250kW풍력발전기개발》, 《0.8tf단조용기계손》, 《평남북부탄전에서 종합지구물리탐사에 의한 새 탄말후보지선정》, 《통합형 공업정보기술제품개발체계》를 비롯한 연구성과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되여 실질적인 은을 내고있는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축전기간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 내놓은 과학기술자료들과 방안들, 첨단기술제품들이 널리 소개되고 그 개발도입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들에 대한 교류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23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축전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기술, 새 제품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전쟁로병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

평양관광대학 교원들

얼마전 동대원구역 신흥2동 9인민반에 사는 박동진전쟁로병이 본사편집국앞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오랜 세월 한 전쟁로병을 친부모처럼 돌봐주고있는 평양관광대학 교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평양관광대학 교원 김정철, 김명철동무들은 한 로인이 매일 아침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시교외의 농장들에 거름을 나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동대원구역 신흥2동 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영예군인 박동진로인이였다.

새 세대 교원들의 감동은 컸다. 그로부터 며칠후 일요일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로병의 집을 찾았다.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이 걸은 길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명절과 휴식일은 물론 때로 색다른 음식이나 약재가 생겨도 그들은 로병을 먼저 찾아갔다.

생각도 마음도 하나인 그들을 대학당조직에서는 적극 내세워주고 떠밀어주었다.

대학의 교원들이 스스로 로병의 친자식이 되여 걸던 나날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올해 여름 어느날 전쟁로병의 집을 찾았던 교원 김명철, 리정남, 림성호동무들은 로병이 앓고있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의료일군들과의 련계밑에 해당한 치료대책을 세워주고 돌아온 그들은 강좌교원들에게 방금 보고온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자책어린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전쟁로병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계기마다 물자나 가져다주는 식으로 대하였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불러주신 귀중한 전쟁로병들을 아끼고 사랑해오지 못했다고 하는 당세포위원장 김명철동무의 말은 세포당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다음날 그들은 많은 가정용품과 생활필수품을 가지고 또다시 로병을 찾아갔다.

이제는 어느덧 10년세월이 흘렀지만 전쟁로병을 위하는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자기 가정에서 리용하려고 마련하였던 조명설비까지 가지고와 로병의 집에 설치해준 림성호동무에 대한 이야기며 애로가 있을세라 제때제때에 도와주군 하던 교원 박영진, 리명숙, 강성동무들에 대한 이야기, 수시로 찾아와 로병과의 상봉모임을 가지고 시와 노래도 읊고 부르며 젊음을 안겨주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등 그 나날에 꽃펴난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다하자면 끝이 없다.

박동진로병에게는 두툼한 여러개의 수첩이 있다. 자기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고마운 소행들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준 이름모를 일군들, 의사, 간호원들의 진정을 잊지 못해 매일매일 일기처럼 적어넣군 하는 그 수첩에는 이런 글줄도 있다.

《나를 위해주는 모든 사랑들을 단순히 친자식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시기에는 화선의 전우들이 생사를 같이하며 나를 위해주었다면 오늘은 새 세대들이 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나는 이들도 다 같이 전우라고 부르고싶다.》

염 금 명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수단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철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9일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 수단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조선과 수단은 깊고도 오랜 친선의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강력한 군사력과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이다.

조선이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 대해 경탄을 금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을 받고있는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수단인민은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정으로

제가 대동강구역 청류2동에 살고있는 김남원동무를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이 건설되고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이였던 김남원동무는 야간지원대(당시)에서 함께 일하였습니다.

부강조국건설의 전투장에서 맺어진 우리의 우정은 그후 제가 특류영예군인이 된 후로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혁명의 군복을 입었던 김남원동무가 제대되여 사회생활을 갓 시작하였을 때였습니다. 어제날의 야간지원대 동무들에게서 제가 특류영예군인이 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김남원동무가 한달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수년세월 변함없이 저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습니다. 명절과 생일은 물론 어느때에도 허물없이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김남원동무의 모습에서 저는 혈육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였고 모두가 바라는대로 혁명적으로, 락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만이 아닌 김혁, 황춘희동무를 비롯한 어제날의 야간지원대원들모두가 오늘도 저와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사랑은 저에게 큰 힘과 고무가 되고있으며 제가 활력과 열정에 넘쳐 생활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고 피어나는 혁명의 꽃, 이것은 김남원동무와 같은 아름다운 인간들이 지닌 뜨거운 진정을 자양분으로 하고있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더욱 붉게 피어나고있는것입니다.

락랑구역 전진동 특류영예군인
김 충 복

말레이시아에서 새 국왕 즉위

말레이시아에서 술딴 무하마드5세가 15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즉위식이 13일 꾸알라룸푸르에서 있었다.

일요일에 진행됨
체 육 경 기

25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4.25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남자롱구 1급 대항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ㄱ-61206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